

코스콤-SK證, 자본시장 핀테크 발굴 협력

오픈플랫폼 활용 확대 및 증권업무 연계 MOU



- 자본시장 공동 핀테크 오픈플랫폼을 운영 중인 코스콤(사장 정지석)이 SK증권(사장 김신)과 핀테크 기업 발굴 및 육성에 나선다.
- 코스콤은 28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SK증권과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자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의 ‘자본시장 특화 핀테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(MOU)’을 체결했다.
- 협력 분야는 ▲핀테크 기업 발굴 및 지원 등 핀테크 활성화 ▲자본시장 핀테크 서비스의 SK증권 업무 연계 ▲자본시장 공동 오픈플랫폼 활용 확대 등이다.
- 양사는 향후 공동으로 핀테크 기업을 조사, 분석, 자본시장 특화 서비스를 선정 후 이를 SK증권 업무에 적용하고 해외 자본시장에서의 핀테크 서비스 적용 사례를 벤치마킹해 나갈 계획이다.
- 또한 정보제공API(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)와 주문API 등 다양한 API를 개발, 이용함으로써 코스콤이 제공하는 자본시장 공동 오픈플랫폼의 활용 분야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- 김신 SK증권 사장은 “이번 협약으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다양한 서비스가 자본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”면서 “이를 통해 양사가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□ 이에 정지석 코스콤 사장은 “SK증권과의 협력으로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의 자본시장 적용 채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”면서 “이를 통해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도 확대될 것”이라고 화답했다.